





달러화 조정 단기화 속 위험자산 및 통화의 전강후약 예상

Analyst 정성윤 02.788.7064

Oct 16, 2017

yunikong@hyundaifutures.com

Equities				
		Ę	년동률 (%)	
	종가 (p)	WTD	MTD	YTD
KOSPI	2,473.62	▲ 3.31	▲ 3.31	▲ 22.07
KOSDAQ	663.08	▲ 1.57	▲ 1.57	▲ 5.01
DOW	22,871.72	▲ 2.08	▲ 2.08	▲ 15.73
NASDAQ	6,605.80	1.69	▲ 1.69	▲ 22.71
S&P 500	2,553.17	▲ 1.34	▲ 1.34	▲ 14.04
SHANGHAI	3,390.52	▲ 1.24	▲ 1.24	▲ 9.24
NIKKEI 225	21,155.18	▲ 3.92	▲ 3.92	▲ 10.68
HANGSENG	28,476.43	▲ 3.35	▲ 3.35	▲ 29.44
HSCEI	8,600.99	▲ 5.59	▲ 5.59	▲ 22.62
FTSE 100	7,535.40	▲ 2.21	▲ 2.21	▲ 5.50
DAX 30	12,991.87	▲ 1.27	▲ 1.27	▲ 13.16

FX Rates				
		Ę	변동률 (%)	
	종가	WTD	MTD	YTD
USD/KRW	1,128.90	▼ -1.44	▼ -1.44	▼ -6.52
USD/JPY	111.92	▼ -0.49	▼ -0.49	▼ -4.11
EUR/USD	1.1834	▲ 0.14	▲ 0.14	▲ 12.17
GBP/USD	1.3304	▼ -0.78	▼ -0.78	▲ 7.47

Treasury Yields				
		변동폭 (%p)		
	종가 (%)	WTD	MTD	YTD
KTB 3Y	1.916	▲ 0.028	▲ 0.028	▲ 0.278
KTB 10Y	2.391	▲ 0.012	▲ 0.012	▲ 0.317
JGB 10Y	0.066	▲ 0.003	▲ 0.003	▲ 0.023
UST 2Y	1.497	▲ 0.014	▲ 0.014	▲ 0.291
UST 10Y	2.277	▼ -0.056	▼ -0.056	▼ -0.169
Bund 10Y	0.405	▼ -0.061	▼ -0.061	▲ 0.197

Commodities				
		변동률 (%)		
	종가	WTD	MTD	YTD
WTI	55.40	▲ 7.22	▲ 7.22	▲ 3.13
Brent	57.17	▼ -0.64	▼ -0.64	▲ 0.62
Copper	6,886.50	▲ 5.44	▲ 5.44	▲ 24.76
Gold	1,301.50	▲ 1.56	▲ 1.56	▲ 13.17

※ 상기 변동률(폭)은 국내 영업일 기준 (YTD 외)



Review of the Previous Week

대북 우려 반감 속 리스크 온

지난 주 국내시장 흐름은 리스크 온 양상이 우위를 점함. 방북 리시아 의원 발언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 우려 불거졌으나, 추석 연휴와 해당 의원이 예고했던 10/10일도 무사히 넘기면서 관련 리스크 반감되는 분위기 연출. 국내 연휴간 미국 세제개편안 기대와 주요국 지표 호조로 선진국 및 해외증시 랠리가 전개된 점도 후반영되며 위험선호를 견인. 이에 9월 말 오버슈팅했던 달러/원 환율도 되돌림 전개. 채권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금리 상방경직성이 비교적 강화되었으나 리스크 온 및 차주 마패적 금통위 경계로 단기 금리 상승하며 커브 플래트닝 시현.

미 주요 지표 예상 하회

주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.5% 상승. 허리케인 하비 여 파로 0.6%의 상승률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하회한 것. 전년동월대비로는 2.2% 상승하며 예상치 2.3%를 하회했으며,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C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5개월 연속 1.7%를 기록. 한편, 9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대비 1.6% 증가하며 예상보다 0.1%p 낮은 수준을 기록.

Preview of This Week

달러화 조정 단기화 속 위험자산 및 통화의 전강후약 예상

미국의 CPI 및 소매판매의 예상치 하회가 약달러와 미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동. 그러나, 동 흐름이 추세적으로 굳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. 허리케인 여파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 요인이 상존하나 CPI 상승률(yoy)이 연준목표치인 2%를 넘어서는 등 절대 수준이 부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. 또한, 이에 앞서 발표된 생산자물가(2.6%)와 근원 PPI(2.2%)의 상승률(yoy)은 시차를두고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 시사. 즉, 지난 주발표된 미 물가지표 결과는 CPI 상승률이 단순히 예상에 못미쳤을 뿐 연준의자신감을 흔들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.

즉, 지난 주 진행된 달러 약세는 단기 조정으로 귀결될 전망. 달러화 방향성이 주요국 통화에 사실상 엇갈렸던 가운데, 엔화 반등과 함께 투기적 순매도가 증가하는 CME 엔 선물 흐름과, 투기적 순매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로/달러 선물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양상 등도 달러 지지를 암시.

국내외 증시는 고점 경신이 이루어진 가운데 고점 상향조정은 가능해 보이나 그만큼 기존 랠리에 의한 피로감도 증가하는 추세. 전인대 모멘텀의 소멸, 이를 전후로 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중국 주요 지표 결과 등이 주요국 증시에 반대급부를 키울 지 주목해야 할 타이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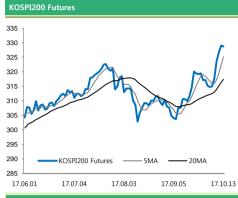
이에 주요 위험자산 및 비달러화의 전강후약에 대비할 것을 권고. 채권시장의 경우 리스크 온의 약화가 일부 반사이익을 제공하겠으나 연준 정책기조가 비둘기화될 것이라는 확신 부족 속에 매파적 금통위 우려 등으로, 지난 달 말하향조정된 가격 레벨 내에서의 움직임 이어질 전망.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 및 생산국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힘입어 하방경직성 우위 예상.





현대중공업그룹 -

주요 상품별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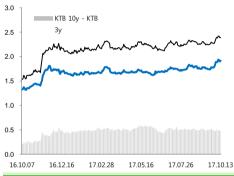
주간 예상 레인지: 320.00 ~ 333.00

관성적 상승 시도가 고점 상향조정 이끌겠으나 상방 경직성 점증하며 전강후약으로 귀결될 가능성 대비.

중국 전인대(18일) 모멘텀 소멸과, 이를 전후로 한 중국 지표(19일) 결과,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부 등이 조정 속도 및 폭을 결정할 것.

Treasury Market

주간 예상 레인지: [KTB1712] 108.50~ 108.70, [LTB1712] 122.45 ~ 123.10



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 등을 근거로 한 금통위의 매파화 경계되며 단기금리의 하방 경직성 강화.

미 지표 부진과 대외 금리 하락 시도가 가격 지지력을 공존시키겠으나 연준의 비둘기화 개연성 높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책 부담 중첩으로 베어 플래트닝 양상 이어질 전망.

USD/KRW

주간 예상 레인지: 1,123.0 ~ 1,134.0



미 주요 지표 예상치 하회로 인한 달러/엔 하락 여파로 하락 출발 예상되나 추가적인 하방 압력 제한되며 1,120원대 지지력 유지될 전망.

글로벌 달러의 전약후강 예상되는 가운데 미 환율보고서 리스크 소멸 가능성, 중국발 증시 조정압력, 대북 리스크 등이 하단을 받치며 1,130원대 회복 시도 재개될 전망.

WTI Futures

주간 예상 레인지: 50.80 ~ 53.80



배럴 당 50달러선 이하에서 지지선 확보 후 단기 및 중기 이평선 회복하며 전고점까지의 상승 흐름 굳히는 추세.

이라크 지역 군사충돌과 중국 수입 증가 등 우호적 수급 모멘텀에 기댄 고점 상향조정 시도 진행될 전망. 단, 위험선호에 속도조절 예상되는 가운데 53달러선 이상 상승 시에는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보수적 마인드 강화 필요.



Oct 16. 2017.

주간 경제지표 및 이벤트				
	국내	국외		
		중 9월 CPI & PPI		
16-Oct		유 8월 무역수지		
		미 10월 NY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		
		미 9월 재정수지		
	9월 수출입물가	호주 통화정책회의록		
		유 ZEW 경기전망지수		
17-Oct		유 9월 소비자물가 [확정]		
		미 9월 산업생산		
		미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		
	9월 고용동향	미 연준 베이지북		
18-Oct	8월 통화 및 유동성	미 9월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		
	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	미 주간 원유재고		
	금통위	중 3Q GDP		
19-Oct		중 9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, 고정자산투자		
		미 10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		
		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		
	9월 생산자물가	유 8월 경상수지		
		미 9월 기존주택판매		
20-Oct				

주요 Charts

